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레 김두산 김영애 김경연A 김현구 김희규 박권재 박근업 박복례 박순웅 박순자 박은숙 방현욱 서진화 송형기 이기자 이상현 이한웅 장복순 장윤주 전병구 전순봉 정옥순 채영엽 채희춘 황상근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레 김두산 김순욱 김영애 김춘화 박근업 박복례 박순웅 박순자 방현욱 송다해 윤영준 이기자 이선분 이운욱 이향교 전순봉 정옥순 조규례 채영엽 채희춘 최규규 홍유정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강영성 김경엽 김병을 김중익 김춘화 김현구 박근업 박부웅 박순자 박희군 염영분 이미지 이향교 장성자 전병구 채영엽 천성현 최기훈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경엽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욱 안지영 양영욱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지 이상이 이설아 이소은 이송애 이육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정옥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김민혁 무 명 양일석 이노을 전지선 정승현

👉 월정헌금

김두산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37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편 119편 33절 ~ 40절			
월요일	시편 119편 41절 ~ 56절	목요일	시편 119편 89절 ~ 104절	
화요일	시편 119편 57절 ~ 72절	금요일	시편 119편 105절 ~ 120절	
수요일	시편 119편 73절 ~ 88절	토요일	시편 119편 121절 ~ 136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찬양대	지휘자	활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화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룙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욱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마교도소, 영동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9. 08. 주일 예배 설교

마가복음 11장 1~10 절	왕이신 예수님	설교자 이진우 목사
-----------------	---------	------------

예수님은 드디어 베로아 여행을 끝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공인하시고, 유대의 교권자들과 정면 충돌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매우 독특한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사람을 앞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도 타 보지 않은 나귀를 맞으면 마들에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으면 말고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작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1.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 사실 구약에서 나귀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사람들은 솔로몬을 다윗 왕이 타던 노새에 태우고 그에게 기쁨을 부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불렛 사람이 내리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쁨으로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러지는 제물이 되는 정승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순결이 요구 됩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에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하여 이후 말은 군마로 사용되었고 때론 권력 있는 자들의 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흙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다윗 왕도 노새를 탔고 솔로몬은 다윗이 탔던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으로 옹립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자신의 겂옷을 벗어 나귀 새끼위에 깔고 예수님이 타시게 했습니다. 유대의 많은 우리는 자신들의 겂옷과 입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아 놓고 주님을 높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의 음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 왕이 가는 길에 펴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당시 중동지방에 있어 개신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개신장군은 군마를 타고 군병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였으나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많은 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단지 인생의 문제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됨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겂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모습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2.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이 땅에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해 줍니다. 밀책이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크게 세 가지의 사용 용도가 사용 되었습니다. 첫째는 짐을 나르는 수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나귀에 싣고 돌아왔으며 이새는 떡과 포도주가 담긴 가죽부대 하나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비가일도 노한 다윗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귀에 싣어 다윗에게 갔습니다. 둘째로 농사에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밭을 가는 데 소와 나귀를 거리해서서 안되었으며 나귀는 안식일에 일을 시켜선 안 되었고 오히려 안식일에도 필요하면 보살피 주어야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길 일은 나귀는 원수의 것이라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으며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도 짐을 싣고 앞뒤러져 있다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셋째 나귀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길드와 야살의 아들 30명은 나귀를 탔고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은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에 비해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고자 하셨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나귀가 하는 일은 무거운 짐을 사람 대신 져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대속 사역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농사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듯 우리 예수님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통수단으로 먼 길을 가는 자가 나귀를 타고 나귀와 동행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심으로 저 천국에 이르기 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되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죄어져야 하는 형벌이라는 죄의 짐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친히 강당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평화롭게 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뿐 아니라 권리와 근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닮을 때, 성도의 인생 여정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지금도 삶이 무게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 드리며 평강의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5 - 37

2019. 09.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온가족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 로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565(통300)장

다 갈 이

(Praise)

예수께로 가면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홍 정 훈 집 사

(Prayer)

[3부] 배 경 철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시편 128편 1~6절 [구약P.898]

성 미 영 권 사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저 산을 높이 만드신 주[Amalara Page]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행복한 가정은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1,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59(통305)장

다 갈 이

(Praise)

사절에 봄바람 불어 잇고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배



추석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이경자권사]

정 계 속 권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4장 10~12절[신약P.192]

인 도 자

설 교

어떻게 이방종교를 대처해야 하나요?

김 제 호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온가족예배]

오늘(15일)은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연휴로 온가족예배를 합니다. 1,3부 예배만 있고, 주일학교 및 식사는 없습니다.

- [사랑의 주일 헌금]

지난 주(8일) 사랑의 주일 헌금은 총 1,402,000원 헌금되었습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9/20) 금요기도회는 사랑2초원 주관으로 합니다.

-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회]

서울남노회 영등포시찰 정기회가 9월 16일(월) 오전11시 예수사랑교회(조근일목사 시무)에서 있습니다.

- [서울남노회 여전대회 연합회]

서울남노회 여전대회 연합회 헌신예배 및 찬양제를 9월 17일(화) 오전11시 남서울교회당에서 개최합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 [소망부 개학]

소망부가 9월 21일 토요일(10시 30분)에 개학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0월 행사 안내]

9월 5일(목) 전도부 하반기 노방전도시작

9월 8일(주일) 사랑의 주일

9월 15일(주일) 온가족예배

9월 21일(토) 소망부 개학

9월 22일(주일) 루디아여전대회 헌신예배

10월 9일(수) 전교인 일일 힐링 세미나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남전대회 월례회(3부예배후/본당) *교육위원회 월례회(찬양예배후/로템나무) *찬양위원회 모임(찬양예배후/찬양연습실)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유민 어린이	신유민 학생	온가족 예배	박종삼 집사		드보라 여전대회
다음주	전병구 집사	심혜윤 청년	윤조훈 장로 이언숙 권사	유현호 집사	소망1 고척1 고척2	에스더 여전대회

9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35주(1일)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이승예 권사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백남실 권사	
	36주(8일)	유현호 집사	최기훈 장로	이영미 권사	윤조훈 장로	박종삼 집사	양영욱 권사	
	37주(15일)	홍정훈 집사	배경철 장로	성미영 권사	온가족예배		정계속 권사	
	38주(22일)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곽정순 권사	배경철 장로	이승예 권사	이경자 권사	
	39주(29일)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박복순 권사	강영성 장로	홍정훈 집사	손명화 권사	
	예배안내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